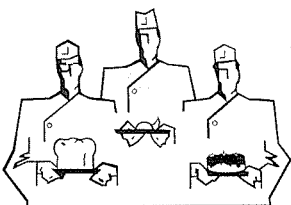


사당동

마마다무 과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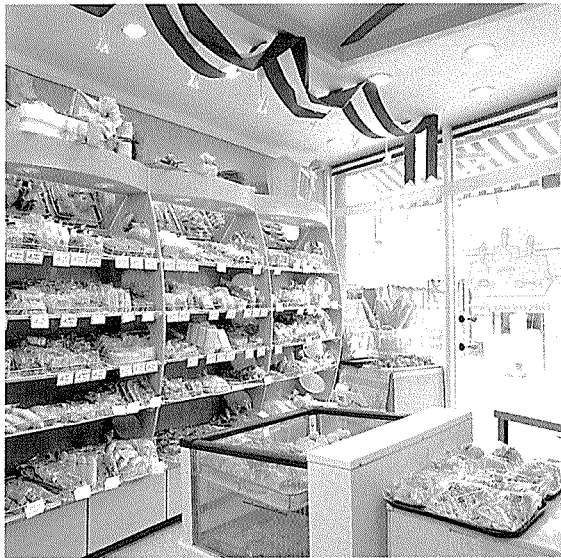


좁은공간에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분위기 낸

Créer, c'est notre plaisir

- 위치: 동작구 사당동 42-3
 - 면적: 공장 7평, 매장 7평
 - 내부마감재: 천정/헨디코트, 리카
벽면/지단작업, 올림픽스테인, 리카칩
바닥/데코타일
조명/U램프, MR칼로진, 실링팬.
 - 외부마감재: 간판/파나플렉스 지정로고
외부벽체/미승합판위 올림픽스테인
- (시공 및 설계: 인터내셔널우주)

◀ 매장안쪽에 위치한 쇼케이스. 좁은 공간에 앙증맞게 자리를 잡고 있다. 쇼케이스와 계산대 뒤로 연결돼 있는 공장 공간과 매장 중간에 선반을 설치하고 빵공예와 소품으로 장식해 귀여운 분위기를 주고 있다. 계산대에는 '브레드 애즈 라이프'를 안내해주는 듯한 마치 영화속의 한 장면을 연상케하는 인테리어를 실현했다. 그리고 이곳 주인의 '도전 내가 최고'에 출연 수상한 비디오로 고객의 호기심을 부르고 있다.



▶ 입구 오른쪽에 위치한 빵디스플레이대. 둥글린 진열대가 오히려 매장을 좋아보이게 한다. 또한 시선의 높이도 조절되어야 할 것 같다. 가운데 냉장 쇼케이스가 앙증맞다.

▶ 마마다무의 외부파사드는 단순하게 처리 깔끔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이곳 주인의 사진을 함께 처리한 간판은 이곳 지역구매인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전면 유리 하부에는 제과와 관련된 아기자기한 이미지 사진이 외관을 밝게 하고 있다.



◀ 입구 오른쪽에 작은 테이블 하나로 바게트와 도우넛을 연출했다.

창문을 설치했다.

매장 왼쪽에는 식빵만을 진열하는 코너를 두었고 벽면에는 유럽풍의 칼라 이미지 사진이 돋보인다. 공장과 매장 중간에는 앙증맞은 쇼케이스를 배치했고 계산대 주위를 장식한 소품과 공예빵은 이곳의 아기자기한 매장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단순한 로고와 사인으로 처리한 간판은 이곳 주인의 기술 경력을 함께 담아 지나는 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며 전면 유리 하부에는 제과와 관련된 이미지 사진을 붙여 이곳의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실현했다.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제품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마마다무과자점은 이러한 좁은 공간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으며 맛과 가격뿐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듬뿍 담긴 제품으로 지역고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6월 오픈한 마마다무과자점(대표 김성일)은 상당동 경문고등학교 옆골목을 500m정도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 마마다무과자점은 슈퍼마켓, 채소가게, 문구, 분식점 등이 주택지 골목을 따라 길게 형성된 상권의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다.

주택지의 배후세력이 주고객이기 때문에 제품력과 지속적인 서비스로 지역 단골구매자를 유지해 나간다면 꾸준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다. 또한 바로 옆에 위치한 교회의 주말 구매도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

골목을 따라 길게 형성된 상권이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급 제품보다 저가격 지향의 경향이 강한 이곳 구매경향을 반영하여 마마다무는 식빵이나 조리빵 등의 빵류제품을 강화하면서 기획상품 등으로 제과점의 인식도를 높여가는 경영전략을 펼치고 있다. 즉, 제품의 맛과 질로 지역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로 친근감을 주는 곳이다.

엄마의 깊은 사랑이란 뜻을 지닌 이곳의 인테리어는 자연무늬목의 내추럴 칼라를 주조색으로 좁은 공간을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장식한 이웃사촌 같은 친근감을 주는 곳이다.

입구 오른쪽으로 빵디스플레이대를 배치한 이곳은 이곳의 주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을 진열했으며 출입구에는 바게트와 도우넛의 셀프대를 배치했다. 좁은 공간이지만 입구 왼쪽에는 실연코너를 마련하여 지나는 고객의 구매욕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계절별로 제품연출을 달리할 수 있도록 실연코너에 작은

